

보도시점 2026. 6. 16.(화) 06:00      배포 2026. 6. 15.(월) 14:00  
 6. 16.(화) 석간

## 농관원, 개발도상국에 농산물 안전관리 선진 기술 전수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 농업부 공무원 7명 초청 연수 사업 실시
- 우리나라 선진 유해물질 분석기술 전수로 개발도상국의 농산물 안전관리 역량 향상 및 국가 간 협력 증진에 기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의 농업부 공무원 7명을 초청해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3주간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연수를 실시한다.

‘아시아 개도국 농산물 안전관리 및 분석 관계관 초청연수’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3번째 개최되며, 13개국 161명의 농산물 안전관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연수기간 동안 국가 간 농산물 안전관리 제도를 공유하고,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해물질 분석법 교육이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곰팡이독소 등 농산물 안전과 직결되는 위해요소 검출을 위한 분석법 이론과 실습이다.

특히, 이번 연수는 잔류농약을 분석하는 기기인 LC-MS/MS\* 등 첨단 분석장비를 이용한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수생은 최신 분석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시료 전처리부터 분석결과 도출까지 전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실무 중심의 분석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LC-MS/MS(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농산물에 남아있는 잔류농약 등을 극미량까지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

농관원 김철 원장은 “농산물 안전관리는 국민 건강은 물론 국제 교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로, 국가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초청연수가 개도국의 농산물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농관원의 첨단 분석기술과 안전관리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K-농산물의 안전성과 우리나라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초청연수 사업 개요

2. 초청연수 입교식 사진(16일(화) 12시경 추후 별송)

담당 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책임자	과 장	정윤채 (054-429-4131)
		담당자	연구관	신병곤 (054-429-4135)

□ **목적**

- 농관원 유해물질 분석 기술 연수를 통해 수원국의 농산물 안전관리 역량 향상 및 양국 간 협력 증진에 기여(ODA 협력 사업)

□ **'26년 추진 계획**

- (연수기간) 2026. 6. 15. ~ 7. 3. / 3주간
- (연수대상) 필리핀 농업부(DOA) 소속 공무원 7명  
\*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분석 담당 실무급 공무원
- (연수내용) 농산물 안전성 제도 공유, 분석법 실습, 현장견학 체험 등
  - (제도) 양국의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등 제도 전반 발표 및 토론
  - (실습)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분석법 이론과 실습
  - (견학) 농산물 안전관리 현장 방문(스마트팜 등)
  - (체험) 한국 전통문화 체험(한복입기 체험 등)

**< 참고. 초청연수 추진 현황 >**

단계	내용
1단계 (’11~’16년)	<b>&lt; 안전관리 제도 연수 &gt;</b> ○ 연수인원: 13개국 121명 - 참여국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 연수내용: 농산물 안전관리 필요성 및 안전관리 체계 전반 등
2단계 (’17년~’19년)	<b>&lt; 유해물질 분석법 연수_다국가 초청연수&gt;</b> ○ 연수인원: 8개국 21명 - 참여국가: 필리핀, 라오스,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 ○ 연수내용: 농산물 중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분석 이론 및 실습
3단계 (’22년~’24년)	<b>&lt; 유해물질 분석법 연수_국가별 초청연수 &gt;</b> ○ 연수인원: 3개국 19명 - 참여국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 연수내용: 농산물 중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분석 이론 및 실습